

# 갈보리 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1 교회표어: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행6:4)
- ① **당회:** 7월 정기 당회가 오는 금요일(29일) 오후 4시 30분 교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 ② **모임:** 오늘 1부 예배 후 안수집사 모임이 계수실에서 있습니다.
- ③ **공동의회:** 다음 주 1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등록한 세례교인)
- ④ **동영상:** 교회 홈페이지 설교 동영상에 장비 노후 관계로 중단되고 있습니다.
- ⑤ **갈보리 장터:** 이번 주 갈보리 장터 코너는 사무실용 의자입니다. 필요하신 성도들은 구입하시고, 기증하실 물품이 있는 성도는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⑥ **감사:** 창립감사 축제 음식 준비와 오늘 식사 준비를 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⑦ **협조:** 교회 주변 도로 보수 공사로 주차시 유의해 달라는 City Council에서 협조 요청 왔습니다.
- ⑧ **월례회:** 4남 선교회, 1여 선교회 모임이 교제 후에 있습니다.
- ⑨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실에서 있습니다.

## 갈보리교회 선교지

### 해외 선교지

- ▷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사역)
- ▷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 국내 선교지

- ▷ City Mission 섬김
- ▷ 밀알장애우 봉사

## 7월 교회일지

### 창립기념 감사주일 :

7월 10일 (주일)

### 성경캠프 (아동부):

7월 15일-16일 (금 토)

### 창립감사 음악축제:

7월 20일 (수요일)

## 갈보리 금주 기도 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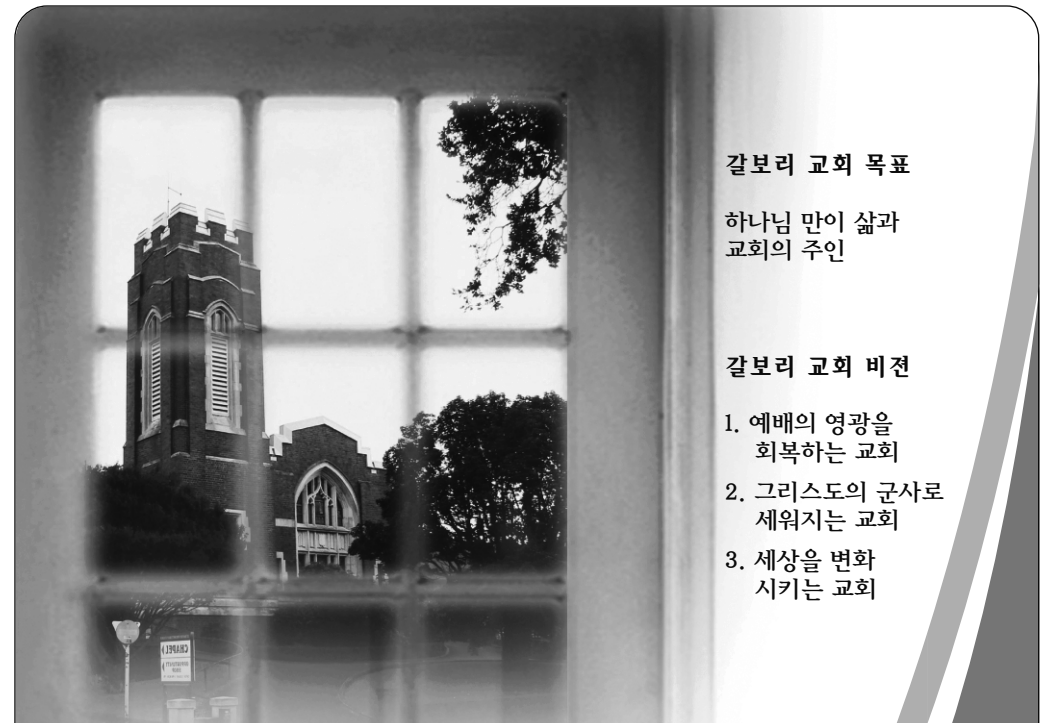
- 환자를 위해**
1. 암 치료중인 기섭형제가 항암제 영향으로 다른 장기가 약해지지 않도록
  2. 여러 질병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도록
- 교회를 위해**
1. 교사들이 지혜와 성령충만으로 기도와 말씀 연구에 힘을 쏟아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2.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전 건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 세상을 위해**
1.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사역을 하고 가족 모두가 강건하도록
  2. 모든 교회들이 거룩함을 유지하여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 얻도록

## 7월 예배담당 안내

1부기도	2부기도	수요기도	1부예배 안내	새신자 안내	주차안내	주방봉사
3일 박덕철	진혜령	정진택	고성일/김봉희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재연
10일 박병민	없음	김휘열	고성일/김봉희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재연
17일 이동술	방명아	남영수	고성일/김봉희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재연
24일 최득수	원미경	민광호	고성일/김봉희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재연
31일 정덕수	최장한	민선희	고성일/김봉희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재연

##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이태한	시무장로/ 시무장로/ 김영길, 이광희	은퇴장로/ 은퇴장로/ 김교섭, 박일영
부목사/ 심창진	김관영, 현석호	정덕수, 최재학
교육전도사/ 진혜령	지휘/ 신경화	유승재, 박제홍
	반주/ 송민영, 유지선	



## 갈보리 교회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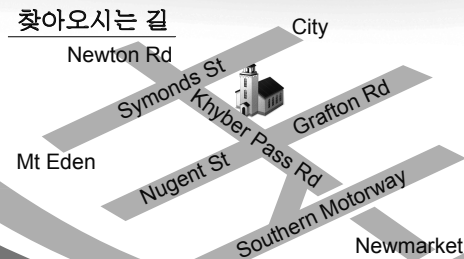
하나님 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 갈보리 교회 비전

1.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2.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교회
3.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11 교회표어: (사도행전 6:4)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2011년 7월 24일

## 예배시간안내

주일1부예배	주일	PM1:00	본당 유아부	주일	PM1:00	유아실
주일2부예배	주일	PM3:00	본당 아동부	주일	PM1: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7:30	본당 중고등부	주일	PM1:00	별관
새벽기도	금요일	AM5:50	Chapel			

주보 13권 30호

www.calvary.org.nz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Ph: 09 - 369-5077

## 주일1부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시편 48:1-2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찬송	19장 (44장)	다함께
*성서교독	135. 성령강림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540장 (219장)	다함께
대표기도	최득수집사	
성경봉독	사도행전 1:6-8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	이태한목사
찬송	182장 (169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주기도문 송	다함께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기도순서안내 | 다음주 기도: 정덕수장로 8월 7일: 최재학장로

건축헌금 | 지난주 헌금: \$130.00 총계: \$597,937.19

## 주일2부예배

오후 3시	다함께	
찬양	청년찬양단	원미경집사
기도	다함께	
성경봉독	열왕기하 12:1-7	인도자
설교	설교 개혁의 실제	심창진목사
찬송	나의 하나님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축도	심창진목사	

다음주 기도: 최장한집사

##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다함께	
찬양	수요찬양단	민광호집사
기도	다함께	
성경봉독	사사기 1:1-21	인도자
설교	가나안 공격의 선봉	이태한목사
합심기도	인도자	
광고	인도자	
찬송	543장 (344장)	다함께
주기도	다함께	

수요일예배 기도: 김교섭장로  
다음 수요일기도: 민선희집사

## 갈보리 칼럼

### 다람쥐와 뽕나무

우리가 언젠가 한 일을 우리가 정작 잊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한 그 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하면 스스로 조심스럽게 된다. 기독교인이라고 명찰을 달거나 Badge를 달고 다니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는 마음으로 표시를 하고 다니고 있다. 이런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나 상대하는 자세에서 교인으로서의 품모가 들어난다.

우리가 주고 받는 평범한 말 속에 생명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무심코 흘린 말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생명을 싹트게 할 지 모른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살아 계신 말씀을 다른 사람과 주고 받거나 신앙을 권유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신앙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남겨주는 말 한마디가 언젠가 생명의 싹이 될 수 있다.

작은 일에 정직함을 보여주는 것도 그렇다. 욕심의 탓으로 순간 마음이 흔들리거나 작은 일이라고 하여 가볍게 보지 않고 정직을 지킨다면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너희는 재판에서든지 저울질 할 때든지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신다. (레위기 19:35-36) 세상의 일로 저울질 할 때에 공평한 추를 사용하라고 하심은 우리의 마음부터 정직하기를 요구하시고 계신 것이다. 마음이 바르면 정확한 추를 스스로를 들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마음을 먹을 때에도 한가지 일 것이다. 드릴까 말까... 이런 주저는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마땅히 들어야 할 추를 바로 드는 대신 우리의 이해관계를 재면서 이 추 저 추를 만지작거리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미리 경계하신 것이리라.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내 민 자그마한 도움의 손길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기도할 때에 나의 가족 나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 때 잊었던 사람을 위해 기도 함은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을 것이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은 무한하시기 때문이리라.

다람쥐는 수 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으며 산다고 한다. 자기가 먹으려고 땅 속에 도토리 같은 나무 열매를 숨겨 놓고는 하지만 곧 어디 있는지를 잊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덕택에 나무는 여기 저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가 언젠가 남긴 믿음이 꼭 찬 말이나 행동이 예상하지 못 한 곳에서 뜻 밖의 일을 이룰지 모른다.

누군가 심어 놓은 뽕나무는 그저 그 자리에서 서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있었지만 세무 공무원인 삭개오란 키 작은 사람을 올려 영혼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

다람쥐와 뽕나무... 주님을 본 받아 사는 우리가 언젠가 뿌린 씨에서 믿음의 나무가 여기 저기 뿌리를 내리고 기도로 여기 저기 심은 뽕나무가 아직 어둠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올려 변화의 눈을 뜨게 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한다.

-유승재 장로